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ㄱㄴㄷ

<금강경>의 유아론적 해석

안팎의 동작 · 법신을 '性'으로 파악
'견성·불성·마음'에 유아론적 성격

대승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 초기반야사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전이 <도행반야경>과 <금강반야경>이다. 이중에서 <금강반야경>을 줄여서 <금강경>이라 부른다.

<금강경>의 특징은 공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공사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점이다. 공사상을 무집착, 무소유, 무소득, 무주(無住), 무상 등으로 말하고 있다. 일체의 사고나 행동을 무소득에 입각하여 행한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종교적 행복이나 우주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강경>의 핵심은 6바라밀을 실천하되 네가지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 경전의 범어명인 바주라 체디카는 '청천벽력같은 지혜로 인간들의 일체 집착과 무지를 잘라버린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며, 일체의 모든 관념이나 습관, 문화적 관성 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금강경>은 경전이 지니고 있는 이상과 같은 정신이나 경전의 간결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 중국에 전역되었다. 특히 요진의 구마라집에 의해 402년에 번역된 <금강반야바라밀경>이 소개되자 많은 불교도들에 의해 애독되었다.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는 많은 사람들이 남기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남아 있는 많은 주석서들은 주석자의 사상적 지평에 따라 각각 특색있는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선종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육조 혜능스님의 주석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육조 혜능에 의해 <금강경>이 남종선의 소의경전으로 추앙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에 대한 스님의 주석은 그의 사상적 편린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전개되는 선사상의 본질을 분석해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금강경>에 대한 육조스님의 주석 중에서 특별히 우리들이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스님이 이 책을 유아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법회인유분에서 여시아문(如是我聞)을 풀이하면서 아(我)에 대해 "아는 성(性)이다. 성이 곧 아다. 안과 밖의 동작이 모두 성(性)으로 말미암는데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들으므로 내가 들었노라"고 한다고 풀이한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주체는 역사적으로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의 한명인 아난을 지칭하는 말이다. 아난이 부처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경전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500명의 비구들 앞에서 기억해 암송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경전의 시작은 여시아문이란 문구로 시작한다. 그런데 육조스님은 그것을 성이란 개념을 대입하여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성(性)은 성품을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 사물의 본질적인 바탕이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아를 근원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성이란 개념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성이란 개념은 매우 중국적인 개념인데, 이 우주와 사물에 편재해 있으면서도 시공을 초월해 존재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 밖이란 공간과 동작이라는 시간이 모두 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여리실견분에서 신상(身相)을 해석하면서 두 가지로 구분한다. 즉 신상에는 유상(有相)과 무상(無相)이 있다는 것이다. 유상은 물질적인 색신(色身)을, 무상은 형체가 없는 법신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법신에 대한 육조스님의 해석이다. 육조스님은 법신을 형체도 없고, 나눌 수도 없으며,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혜의 눈으로는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공간적으로는 허공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법신을 성(性)으로 규정하고, 일체의 선악이 법신에 의지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법신이 있기에 일체의 중생은 동일한 진성(眞性:참다운 성품=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을 수 있으며, 그것은 속성이 본래청정하고, 간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미묘한 작용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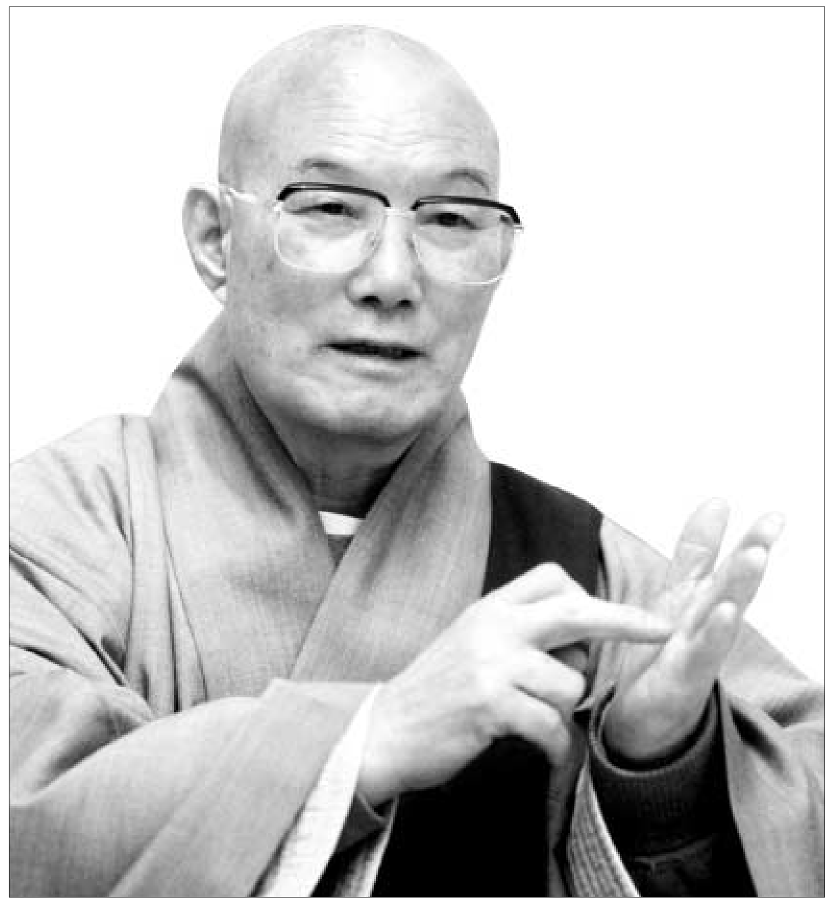
물론 육조스님의 이상과 같은 해석은 지극히 중국적이다. 그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적 교양을 받은 중국인이기에 부지불식간에 중국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만드는 태극의 개념, 일체의 존재나 시공을 초월하는 도, 만물의 존재 이전에 존재한다고 보는 무(無)와 같은 사유체계 속에서 성이란 용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힌두교적인 범(梵)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중국 전통의 성이란 개념은 유아론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중국 선종의 사상 속에서 유아론적인 영향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견성, 불성, 마음, 일심 등에 대한 선장들의 해석 속에 유아론적 성격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지상 백고좌

지혜 스님
(밀양 대법사 조실)

하심은 마음을 크게 비우는 것



◇지혜스님은 수행과 화합의 근본이 하심에 있다고 강조하신다.

"좋은 생각으로 서로 위하면 세상 밝아지는 도리 알아야"
佛法 실천 안하면 고통 받아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내 편, 네 편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항상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하심하고 보면 네 편, 내 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나뉘어져 있어요. 편 가르고 나누는 것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화합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였던 모습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 것도 준 것이 없고,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무엇이 따로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잃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욕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욕심이 없으니 나와 남을 구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은 하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화합하기 위해서는 하심해야 합니다.

하심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크게 비우는 것입니다. 선방에 앉아서 30년 40년 넘게 공부했다고 해도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평생 공부가 헛수고가 됩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데, 무슨 공부를 할 수 있으며, 부처는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부처님 법의 근본은 발심하고 원력을 세워서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 견성성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심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심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자기 마음자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보게 되면 다른 사물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심이라는 것은 원래 좋은 일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기 자신은 나쁜 일을 다 받아 자기 몫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속에 하심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기 살기로 천길만길 떨어지겠다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하심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바로 알겠다는 원력이 있어야 해요. 자성을 깨치지 못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성을 깨치면 중생이 곧 부처입니다. 자기의 성품을 깨치지 못하면 곧 중생이요, 자기의 성품을 깨치면 곧 부처인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흐름이 그렇다고들 하는데, 이제는 새 것으로 살아볼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곡식이 잘 되려면 거름을 주고 잘 돌보아 하는 것처럼 생각도 이렇게 잘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대흐름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시대흐름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부처님 법은 변하지 않아요. 단지, 어떻게 부처님 법을 펴고 실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중생이 고통 받는 이유는 부처님 법을 모르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좋은 생각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시대흐름을 좇는 것은 다름 아닌 불국토를 만드는 일이예요. 그리고 이것은 불법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합니다. 하심하면 거기가 곧 부처자리지요.

세상은 얼음처럼 차고 불같이 덥습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공부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공부라는 것은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공부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의 진정한 힘은 인내심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심의 참뜻은 바로 하심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춰야만 인내심이 생깁니다. 인내심이란 바로 마음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심을 하려면 마음자리를 제대로 봐야 하는데 그건 눈으로 볼 수 없지. 깨달음이 어디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깨달은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보일지 몰라도 자기 안에는 광명천지가 있어요.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중생을 위하는 일인데, 자기 마음자리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평소 사람만나기를 꺼리는 지혜스님은 기자에게도 짧은 인터뷰만 허용했다.

부처님의 출가 제자 가운데에는 수행과 지혜가 특출한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 아나율과 목건련은 천안통과 신족통을 얻었는데, 그 신통력의 본질은 다름 아닌 지혜입니다. 10대 제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가르침은 바로 지혜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공부해 보세요,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세상의 이치가 보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내외중간(內外中間)도 없고, 있는 곳도 없고, 있지 않은 곳도 없어요. 우리가 마음 마음 하지만 마음은 모양도 없고 바탕도 없어서 아무런 걸림이 없습니다. '대각(大覺)은 본원심(本源心)이라 대각(大覺)이 보명(普明)하니 산색(山色)은 부처님의 청정법신(淸淨法身)이라.' 본래 갖춰진 큰 깨달음을 널리 밝히니 온 세상이 부처님의 청정법신입니다. 보이는 만물은 관음(觀音)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妙音)이라, 듣는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마음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해 보세요, 어찌 진리를 얻지 못하겠습니까.

육신은 허망한 것입니다. 마음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죽고 나면 모두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돌아가는데 집착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은 보려고 하지 않고 육신에 매달립니다.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육근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주관과 환상에 지나지 않아요. 진실은 마음에 있습니다.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그릇으로는 아무 것도 담을 수 없어요. 윤회와 번뇌는 벗어나기 어렵고 한 번 죽으면 이 세상에 다시 오기 힘든데, 살아있을 때 마음으로 살아야지 몸뚱이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반드시 고비가 있습니다. 세상에 뜻대로 되는 일은 많지 않아요. 저마다 그릇의 크기가 다르니 담을 수 있는 것도 다르겠지요. 그렇다고 그릇 크기가 어디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릇의 크기는 다름 아닌 마음의 크기 입니다. 마음을 크게 하려면 마음자리를 봐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물을 밝고 넓게 보면 마음도 커집니다. 밝고 넓은 것이 바로 태어날 때의 본모양이요, 마음자리입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진한다면 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확고한 가치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20년간 제방선방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머무르게 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 대법사는 원래 표충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조선조 임진왜란 때 선조임금이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킨 사명대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표충사(表忠祠)라는 사당을 짓고 사명대사의 영정을 모셨어요. 그리고 표충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가면서 이곳을 대법사로 바꾸고 불사를 했지요.

이곳을 수행처로 삼은 것은 사명대사의 뜻을 잇고 불자들에게 삶의 바른 도리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바른 도리는 조상을 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불교를 위하고, 사회에 회향하는 것입니다. 조상을 위하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생명의 인연을 맺어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지요. 스승의 은혜를 알고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국민 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킨 것도 바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에요. 불교를 위하는 방법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자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사회에 회향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베풀며 살라는 뜻입니다. 지장보살이 중생에게 다 베풀며 나쁜 업은 자신이 다 받겠다고 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베풀 수 있어야 공덕이 됩니다.

'무상(無常)으로 근본을 삼고 무생(無生)에 안주하여 무염(無染)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보리(無上菩提)요 무애해탈(無碍解脫)이며 무한생명의 자체구현(自體具現)이라.' 일체 현상에 대한 집착을 벗고 산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요 해탈이며, 만 생명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심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으세요.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기자가 본 지혜 스님

60여년 수행 몰두…출가자 전형 보여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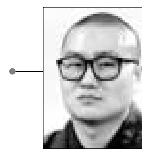
'사명대사의 후신'으로 불릴 정도로 밀양 지역 사람들이 지혜스님에게 갖는 존경과 신망은 두텁다. 지역의 각급 기관장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스님을 찾아와 견해를 청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지 않는다. 지난 2월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선출돼 각계로부터 많은 축하인사를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스님은 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셨다고 한다. 지혜스님은 평소 말이 없고, 공부에 방해된다며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수행에 대한 열의가 깊다.

30년 넘게 지혜스님을 모셔 온 원공스님은 "스님이야말로 참수행자 모습 그대로다"고 말한다.

"스님을 보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새벽 세 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스님은 출가해서 지금까지 60년 넘게 수행에만 몰두해왔다. 시절인연(時節因緣)이 되면 도를 깨칠 수 있다며 일념으로 수행정진할 것을 강조하신 은사 동산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만공스님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전국 선방을 돌아다니며 20안거를 했다. 이후 충북 단양 원통암에서 7년을 고행정진했다. 보리쌀 1말, 좁쌀 3되, 쌀 3되를 가지고 들어가서 깨닫지 않고는 나오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수행정진을 하다가 6년이 지난 어느 날 시절인연의 의미를 깨달았다. 지혜스님은 1924년 진주에서 태어나 37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입산해 사미계를 수지하고 범어사 강원 대교과를 수료했다. 40~43년까지 금정선원에서 4년간 정진한 뒤 44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54년까지 해인사, 금강산 유점사, 마하연 등지서 수행을 계속했으며, 55년부터 62년까지 충북 단양 조계산 원통암에서 오도정진했다. 68년까지 월정사 등 전국 선방에서 주석하다 69년부터 대법사에서 수행정진해오고 있다.

심산스님의 스님 이야기



지태스님

새싹불자 키우는 일에 솔선
이상적 도심포교당 플랜 '눈길'

전북 내장산에서 출가한 나는 항상 대중들이 많은 큰 절에서 살고 싶은 것이 꿈이었다. 그 생각이 헛되지 않았던지 공군법사를 마치고 우여곡절의 사연을 거친 후 통도사승가대학에 방부를 들일 수 있었다. 드디어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그때의 기분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 그 덕에 신심을 내서 열심히 큰 절 생활을 했다.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고 마침내 환희심으로 통도사승가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통도사에 살기까지는 대학 도반인 우진 스님의 도움이 컸다. 그렇게 통도사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만으로도 행운이었는데 더 큰 행운은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찾아왔다. 타 문중인 나를 통도사의 종무소에 살수 있도록 직접적인 인연을 맺어준 스님이 바로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마산 정법사 주지 지태스님이다.

내가 통도사 승가대학 대교반일 때 지태스님은 교무국장 소임을 맡았다. 그리고 나를 교무과장으로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사실 지태스님은 동국대학교 석림회로는 2년 후배이다. 물론 법랍으로는 당연히 월등한 선배이지만 말이다. 당시에는 학년 간에 규율이 엄격하고 학년 지상주의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입장에서는 그러한 제의가 그리 쉽지 않았다. 그러나 무슨 인연인지 흔쾌히 받아들였다. 막상 종무소 소임을 시작하면서 편안하지 못한 무언가가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학교 다닐 때와는 뒤바뀐 상황에 대한 부적응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소 어정쩡한 입장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서로에 대한 이런저런 과거의 기억을 접고 현재만을 생각하자고 제의했고 서로 그것이 공감이 되어 비로소 마음이 편해질 수 있었다. 이때부터는 오직 현재의 주어진 소임에만 전력할 수 있었다.

그렇게 소임을 보면서 지태스님은 역시 법랍이 많은 선배로서 소소한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었다. 특히나 표시나지 않게 관심 가져주는 인격적인 배려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매사에 사려 깊고 전체적인 판단을 통해 일러주는 조언은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일은 역시 하는 사람이 하는가 보다. 내가 먼저 통도사 부산 포교원으로 주지소임을 나가고, 지태스님은 마산 포교당 정법사 주지로 가게 되었는데, 본사에서의 소임이나 석림회 때의 일처리 경험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마산 불교계와 정법사의 면모를 확연히 바꿔 놓은 것이다. 지태스님은 현재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4곳이다. 본래 마산 정법사에 있는 것에서부터 창원의 두 곳을 비롯해 진해에 이르기까지 어린불자를 키우는 일에는 과감한 투자를 하는것이 인상적이었다. 그것은 상식과 경제논리를 넘은, 포교 일념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다. 거기다가 무료급식을 하는 데에도 하는 척만 하는것이 아니라 진짜 정성껏 최선을 다한다. 왜냐하면 매일 매일 계산적으로 따지지 않고 오직 그냥 하기 때문이다. 무료급식을 한다고 폼만 잡아본 경험으로 볼 때 더욱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다.

작년에 정법사에서 스님과 점심공양을 같이 한 적이 있다. 그때 주변의 집들을 인수해서 법회와 문화, 복지 등을 아우르는 건물을 건립해 포교당의 품격을 높이고 도심속 사찰의 현대적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들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적절한 모습이라는 생각에 마음속으로부터의 존경이 일었다. 이처럼 모든 소임자가 자신의 영역을 발전시켜 나아간다면 불교의 미래는 희망만이 존재하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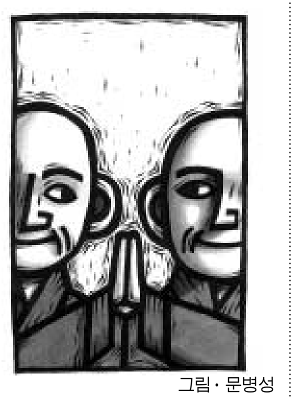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그리고 정법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중 재정공개와 신도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재정관리는 특히나 공감이 가는 일이다. 그것이 해보면 오히려 마음편한 일이기 때문이다. 놓으면 잡히는데 놓지 못하니까 잡는 것도 없는 것이 사찰재정의 현주소이기에 더욱 그렇다.

돌이켜 보면 어느새 지태스님과의 각별한 인연도 강산의 변화를 느낄 만큼 세월이 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잔잔한 관심으로 항상 함께 해온 지태스님과의 인연은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더없이 소중하다. 도심이라는 다소 삭막한 공간에서 당당한 소신과 커다란 원력으로 이루어온 스님의 포교감각에 크게 공감하면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 (사)한나래 문화재단 이사장

당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인슐린)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초원케미칼라이프 Co.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대구 자비의 전화
제12기 상담원 모집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같이 하는"
대구 자비의 전화에서는 상담자원 봉사자 교육 및 모집을 위한 제12기 카운슬러 대학을 개강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아실현을 이룩하려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 강 일 : 2003년 4월 15일 ~ 5월 16일(매주 화 · 금)
■ 교육시간 : 오후 2시 ~ 4시
■ 교육대상 : 20세이상, 고졸이상의 남녀 (상담 봉사에 관심있는 분)
■ 교육장소 : 자비의 전화 교육실 (053-753-9734)
■ 교 육 비

회수	날짜	요일	제 목	강 사	
1	4.15.	화	전화상담이론	영남대학교신경정신과	김진성 교수
2	4.18.	금	자원봉사이론	자비의 전화 교육부장	이정화 부장
3	4.22.	화	상담기법	여성의 전화	최은숙 강사
4	4.25.	금	청소년 문제와 상담	청소년 상담전화	전혜진 강사
5	4.29.	화	상담에서 본 인간심리	신경정신과	최태진 원장
6	5. 2.	금	철학과 인간문제	경북대학교 철학과	김윤동 교수
7	5. 6.	화	생활법률 상식		이종경 변호사
8	5. 9.	금	가족관계 및 갈등	대구대학교	박충선 교수
9	5.13.	화	상 담 수 칙	광명회 사무차장 자비의 전화 상담포교사	황 재 연
10	5.16.	금	21C 불교적 자녀교육 방법론	동화사 승가대학 강사	범천 스님
11	5.20.	화	상담실습 및 토론	교육부 주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구지부 제9교구 동화사부설 자비의전화
문의전화 : 053)753-9734
FAX 053)753-9735

승복 법복 안내

1. 모직춘방 물세탁 가능 — 적삼, 바지 : ₩140,000 / 동방, 바지 : ₩160,000 / 두루막 : ₩140,000
2. 면 100% 조각무늬 무직 — 적삼, 바지 : ₩130,000 / 동방, 바지 : ₩150,000 / 두루막 : ₩130,000
3. 면(무지) (면솜 100%) — 적삼, 바지 : ₩130,000 / 동방, 바지 : ₩150,000 / 두루막 : ₩130,000
4. 무명 — 적삼, 바지 : ₩180,000 / 동방, 바지 : ₩200,000 / 두루막 : ₩180,000
5. 법복 (회색, 밤색) 조끼, 바지 : ₩60,000 ~ ₩65,000
6. 장삼 (모직) ₩200,000~₩250,000
7. 티셔츠 (차이카라) ₩3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 전화로도 가사, 누비 주문 받습니다 ※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섬유
전시장 : 053-256-0108
공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리점모집)

불자님, 이제 병고에서 벗어납시다!!

오랜세월 불보살님 가피를 입은 큰스님께서 세상에 한분 밖에 없는 초능력 힘을 지닌 불보살님으로 명명 받은 분께서, 병원에서도 치유되지 않는 원인모른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병명: 수증증, 와사풍, 중풍 (발병 6개월이내) 간질, 만성위염, 오장육부가 불편, 만성두통, 천식, 천도폐렴, 관절염, 만성피부질환, 정신질환 설사 및 어려운 병 등 (내방환영합니다)

대구 팔공산 갓바위 뒷길 시연정사
053)853-2211, 011-808-8880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해질로 바뀌는 발효원액 절식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02)523-0708 초록원(발효요소)
www.chorokwon.com

영험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원사 조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선천성 냉체, 신후비랑, 냉 습 진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골인제약(주)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곳
성라 실버 타운 (유료양로원)
[입주문의 및 상담] 011-9971-3743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